

# 〈詠懷詩〉82수에 나타난 자연물의 상징 양상 III

沈禹英\*

## ◁ 목 차 ▷

- |                        |                     |
|------------------------|---------------------|
| I. 序                   | VI. 昆蟲類(蟋蟀, 螞蚱, 蜉蝣) |
| II. 風, 霜, 雲(霄), 清露, 青天 | IV. 結論              |
| III. 日(陽, 暉, 光), 露, 塵  |                     |

## I. 序

阮籍의 〈詠懷詩〉82수에 나타난 자연물의 상징 양상을 제목으로 제1편을 상명대학교 어문학연구소에서 발간한 《어문학연구》 제8집에 이미 등재한 바 있다. 그 논문의 序에서 밝혔듯이 阮籍의 〈영회시〉82수에 등장하는 상징물은 크게 네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논문 제1편은 그 첫 번째 제를 다룬 것으로 禽鳥類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제2편은 植物類를 대상으로 韓國中文學會가 발간한 《中國文學研究》 제19집에 이미 발표한 바 있다.

본 논문은 마지막 편으로 風霜類와 其他類를 대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風, 霜, 雲, 天, 日, 露, 塵, 昆蟲 등이다. 그런데 곤충류(蟋蟀, 螞蚱, 蜉蝣)를 제외하면<sup>1)</sup> 사실상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현상(風, 霜, 雲, 露, 塵)과 자연계의 두 개의 큰 축인 태양(日)과 하늘(天)을 주로 다룬다고 말할 수 있다.

목차의 순서는 뚜렷한 기준 없이 편의적으로 정하였음을 먼저 밝힌다. 우선 제2절에서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風'을 맨 앞에 두고, 그것과 더불어 자주 등장하는 '霜'과 '雲'을 다음에 두었다. 그리고 '清露'나 '青天'을 굳이 거기에 포함시킨 것은 위의 상징물(霜, 雲)과 상응하거나 혹은 대비되어 한 편의 시에 함께 등장하기 때문이다. 제3절에서는 '日(해, 태양)'을 중심으로 서술하는데, 이것과 유사하게 사용되는 '陽'이나

\* 상명대 중문과 부교수

1) 모두 세 수(제14, 24, 71수)에 불과함.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暉'나 '光'도 함께 묶었다. 이외에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간과할 수 없는 '露'(清露는 제외됨)와 '塵'까지 아울러 서술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곤충류만을 따로 서술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상징물 하나 하나를 분석하고, 분석한 결과를 다시 종합하여 그것을 도표로 그린다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정리한 것을 가지고 다시 세밀한 분석을 시도한다면 본 논문의 궁극적 목표인 〈영희시〉82수에 나타난 자연물의 상징양상을 소상하게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II 風, 霜, 雲(霄), 清露, 青天

### 먼저 제3수를 보면

좋은 수목 아래 작은 길이 생겼으니, 동원 안의 복숭아와 오얏 때문이다. 가을 바람이 불어와 풍잎을 날리자, 이때부터 시들하더니 떨어지기 시작한다. ……된서리가 들풀을 덮었으니, 또 한 해가 이렇게 저무는구나.

嘉樹下成蹊，東園桃與李。秋風吹飛葢，零落從此始。……凝霜被野草，歲暮亦云已。

라고 되어 있다. 가을 바람(秋風)이 불고 된서리(凝霜)가 내린다는 것은 웅대한 해가 저물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sup>2)</sup> 한 해가 저물어 간다는 것은 개인으로 따지면 인생에 있어 만년을, 국가로 따지면 운명에 있어 말년을 상징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인식되어 왔다. 시인이 처한 당시의 시대 환경을 감안한다면, 위의 시구 역시 그러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옛날 주석가들은 司馬氏의 정권 탈취로 인한 魏室의 멸망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비유한 것이라 단정하고 있다.<sup>3)</sup> 따라서 零落과 歲暮를 재촉하는 '秋風'과 '凝霜' 모두 魏室을 위협하는 '사마씨 집단의 興起'를 상징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와 거의 유사한 예로 제9수를 들 수 있다.

2) 이 시에서 '秋風'은 '零落'과 '凝霜'은 '歲暮'와 연결되어 있다. 《楚辭》(九懷)에서도 '秋風兮蕭蕭，舒芳兮振條。微霜兮眇眇，病歎兮嗚嗚。'라고 하여, 한 해의 마감을 의미하고 있다.

3) 五臣呂延濟曰：「言晉當魏盛時則盡忠，及微弱則凌之，使魏室零落自此始也。」劉履曰：「及乎權奸擅橫，則賢者衰散，亦猶秋風一起而草木零落。……篇末復爲'紫霜被草，歲暮云已'者，蓋見陰凝愈甚，世運垂窮，朝廷將變，無復可延之理，是以情促辭絕，不自知其歎息之深也。」閔齊華曰：「歲暮已盡，喻時亂之極，有急去之意。」王闓運曰：「秋風吹飛葢，零落從此始。言爽敗亡也。……凝霜被野草，歲暮亦云已。淒然顯，悲涼無際。」이 외에 何焯，陳沆，陳昨明，吳淇，方東樹 등도 모두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陳伯君校註《阮籍集校註》p.217-218, 中華書局, 北京:1987)

……좋은 시절 언제일까? 된서리가 옷깃에 쌓였다. 세찬 바람 산등성이 흔들고, 검은 구름 무거운 그림자 드리우니, 기러기 울며 남쪽으로 날아가고, 집동새 슬프게 소리지른다.……

……良辰在何許，凝霜沾衣衿。寒風振山崗，玄雲起重陰。……

위에 인용한 시구 역시 한 해가 저물어 가는 늦가을을 형상화한 것인데, 제3수에 등장한 '凝霜'이 그대로 나오고, 또한 秋風보다는 강해지긴 했지만 앞 뒤 문맥의 분위기로 보아 별반 다를 게 없는 늦가을의 추운 바람(寒風)에다, 음침한 분위기를 더욱더 가중시키는 검은 구름(玄雲)이 보태어졌을 뿐이다. 이렇게 본다면 제3수와 거의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玄雲' 또한 '사마씨의 검은 기운' 즉 '사마씨 집단의 흥기'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제4수를 보면

……세월이란 멈추는 법 없으니, 부귀를 어찌 영원히 보존하라? 맑은 이슬 물가의 난 초 덮더니, 어느새 된서리 들풀에 쌓이고, 아침에 앳된 소년이더니, 저녁 되자 추한 노인으로 변했다.……

……春秋非有託，富貴焉常保。清露被皋蘭，凝霜沾野草。朝爲媚少年，夕暮成醜老。……

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清露被皋蘭」은 봄을, 「凝霜沾野草」은 가을을 묘사한 것이다.<sup>4)</sup> 봄이 어느새 가을로 변하는 유수 같은 세월, 아침에 소년이었던 자가 저녁이면 노인이 되는 무상한 인생살이, 이러한 고민과 갈등 속에서 시인은 인간 본연의 무력감을 느낀다. 그래서 부귀란 결코 영원할 수 없는 한낱 순간적인 것이라 단언해 버린다. 이렇게 볼 때 위의 시구는 인생 무상을 통한 인간의 참된 삶을 기원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완적 <영회시>의 '文多隱避'라는 표현 특성상 어느 하나도 單純直敍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중적 함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원형적 상징만을 놓고 본다면 봄은 盛함을 가을은 衰함을 상징한다. 그러나 길지 않았던 위실의 운명과 관련지어 생각한다면 성함은 즉 '위실의 흥성'이요 쇠함은 즉 '위실의 멸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봄에 내리는 '清露'는 '위실의 은총'이요, 가을에 내리는 '凝霜'은 역시 '사마씨 집단의 흥기'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제16수를 보면

……揚火星이 남쪽 가운데 머무는 달,<sup>5)</sup> 해와 달이 서로 마주하는 날,<sup>6)</sup> 삭풍 불어

4) 제50수에서는 이 두 구절을 한 구절로 줄여 「清露爲凝霜」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추위 더욱 매섭고, 음기 들자 무서리가 내렸다.……  
 ……是時鴛火中，日月正相望，朔風厲嚴寒，陰氣下微霜。……

라고 되어 있다. 이 시구 역시 陰散한 늦가을과 초겨울의 정취를 형상화한 것이므로, 魏室의 멸망을 눈앞에 둔 형국을 표현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sup>7)</sup> '朔風'은 거울에 부는 '북풍'을 가리키고, '微霜'은 음산한 기운과 함께 찾아오는 무서리를 일컫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 모두 '사마씨 집단의 흥기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위 시구 중의 앞 두 구는 단순히 늦가을이나 초겨울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左傳》중에 등장하는 고사를 用典하여 司馬師가 曹芳을 폐위한 사건을 부각시킨 것으로<sup>8)</sup> 뒤 두 구의 상징적 의미를 더욱 확고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제8수를 보면

번쩍번쩍 서쪽으로 기우는 해, 은은한 빛이 나의 옷을 비춘다. 회오리바람 사방 벽으로 불어닥치니, 겨울 철새들 서로 더불어 의지한다.……  
 灼灼西頰日，餘光照我衣。迴風吹四壁，寒鳥相因依。……

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迴風'은 세찬 회오리바람으로 삭풍의 일종이다. 회오리바람이 시인 주변의 사방 벽으로 불어닥치는 것은 사마씨의 권세가 이미 천하를 뒤덮고 자신을 억누르고 있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sup>9)</sup> 따라서 '회풍' 역시 '사마씨 집단의 흥기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제57수를 보면

사방 들녘에 광풍이 몰아치고, 집 구석까지 迴雲이 드리웠는데, 침상 휘장은 누굴 위해 설치했으며, 안석과 지팡이는 누가 기댈 건고?……  
 驚風振四野，迴雲蔭堂隅。牀帷爲誰設？几杖爲誰扶？……

- 5) 옛날二十八星宿 중 남방에 일곱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朱鳥"라고 불렀다. 朱鳥의 제3수는 柳宿, 제4수는 星宿, 제5수는 張宿인데, 이것을 합칭하여 "鴛火"라 하였다. 이것은 옛날 계절을 가리키는 별자리였다. '中'은 '한가운데'라는 뜻이다. '鴛火中'이라고 하면, 즉 鴛火가 남방의 한가운데에 위치할 때를 일컫는 것인데, 대략 음력 9월과 10월이 여기에 해당한다.
- 6) 달이 시구 주위를 돌면서 태양과 가장 먼 지점에 있을 때 "相望"이라고 한다. 이 때가 음력 15일이다.
- 7) 이 시의 앞 시구 「徘徊蓮池上，遠顧望大梁。綠水揚洪波，曠野莽茫茫。走獸交橫馳，飛鳥相隨翔。……」에 위나라와 관련된 '大梁'이 등장하고, 또한 그곳의 황폐한 정경이 묘사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견해는 당연하다.
- 8) 〈備公5年〉曰：「晉侯伐魏，公問卜僮曰：『吾其濟乎？』對曰：『克之。其九月十月之交乎？鴛火中，必是時也。』」何焯曰：「嘉平六年九月甲戌，司馬師廢帝爲齊王，乃十九日，是月丙辰朔，十月庚寅，立高貴鄉公，乃初六日，是月乙酉朔，師既定謀而後白於太后，則正日月相望之時。齊王芳正始元年改用夏正，則此詩正指司馬師廢齊王芳事也。」
- 9) 종래의 주석가들도 제8수가 당시의 시대상황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다. (陳伯君校註《阮籍集校註》p. p236-239)

라고 되어 있다. 이 네 구는 집 안팎의 상황을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驚風’이나 ‘迴雲’ 모두 제8수에 나오는 ‘迴風’과 거의 비슷하게 사용되었으므로 이것 역시 ‘사마 씨 집단의 흥기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sup>10)</sup> 다시 제70수를 보면

……만약 그물이 엮여져 있지 않다면, 어찌 만리나 되는 먼 땅이 필요하겠소? 회오리 바람 굽구름 위로 치솟고, 채색 구름 해 뜨는 곳에서 서성댄다.……

……苟非斐網罟, 何必萬里巖. 翔風拂重霄, 慶雲招所晞.……

라고 되어 있다. 「翔風拂重霄, 慶雲招所晞」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쉽게 알 수 없으나 黃節의 설<sup>11)</sup>에 의하면, ‘翔風’은 ‘飄風’ 즉 ‘회오리바람’으로 보아<sup>12)</sup> ‘사악한 무리’를 상징하고, ‘重霄’은 ‘九重雲霄’<sup>13)</sup>로 보아 ‘천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慶雲’은 상서로운 구름 즉 卿雲이라고 여겨,<sup>14)</sup> 《楚辭》(九懷)의 王逸의 주를 인용하며 ‘尊顯(지위가 높고 이름이 알려진 사람)’을 비유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것 역시 사마씨 집단에 벼슬을 구하는 간사한 관리로 규정하고 있다.<sup>15)</sup> 다시 제12수를 보면

10) 제57수 「雖非明君子, 豈爾桑與榆! 世有此鸞鵠, 芒芒將焉如? 翩翩從風飛, 悠悠去故居. 離麾玉山, 遺棄毀與譽.」 여기서 시인은 눈멀고 귀머는 세속에서 벗어나기를 시도한다. 그리하여 옥산 아래에 거주하며 세속의 온갖 명예를 벗어 던진 채 초탈의 경지를 향유하고자 한다. 제8수 「如何當路子, 磬折忘所歸! 豈爲夸與名, 懽悴使心悲. 寧與燕雀翔, 不隨黃鶴飛. 黃鶴遊四海, 中路將安歸.」 역시 벼슬길에 오른 자들을 향하여 헛된 명예를 버리고 돌아와 연각처럼 소박하게 살 것을 권유하고 있다. 두 시 모두 세속에 대한 불만에서 출발하고 있다. 사마씨 정권과 관련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11) 萬里巖, 猶遠託之意. 翔風, 猶飄風. 王逸《離騷注》曰:「飄風, 無常之風, 以興邪惡之衆也.」又曰:「拂, 擊也, 蔽也. 重霄喻君也.」《楚辭》(九懷)王逸注曰:「慶雲, 喻尊顯也. 以晉佞曲之臣陞於顯朝也.」「招, 申動貌. 所如日月所照之所.」《毛詩》曰:「東方未晞.」毛傳曰:「晞, 明之始昇.」此言邪惡蔽君, 如雲氣招搖於日之始昇時也.」黃節은 「苟非斐網罟, 何必萬里巖.」 두 구를 속세에 얽혀 있는 온갖 그물을 피해 만리 밖으로 몸을 숨긴다는 의미로 보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설이 가능했다.

12) 어떤 해석에 의하면, ‘翔風’ 또한 ‘慶雲’과 대가 되는 것으로 여겨 群風(상스러운 바람)이라고 단정한다. 그리하여 만 리 밖 ‘翔風’과 ‘慶雲’이 있는 곳을 無愁하고 無悲하고 無思한 이상세계로 간주한다. (韓格平註釋《竹林七賢詩文全集譯注》 p.269-270 吉林文史出版社, 長春:1997)

13) 九重은 ‘九重宮闈’을 약한 것으로, 보통 ‘천자가 사는 궁궐’로 해석되어진다.

14) 黃節은 제40수에서 ‘慶雲’에 대한 주를 달기를, 《史記》(天官書)에 나오는 「若煙非煙, 若雲非雲. 郁郁芬芬, 蕭索輪困, 是謂卿雲.」을 인용하여 ‘卿雲’과 동일한 것으로 보았고, 《竹書紀年》(帝舜有虞氏)曰:「十四年, 卿雲見, 命禹代虞事.」라고 한 것을 보면, ‘卿雲’은 ‘상스러운 구름’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5) ‘晞’에 대한 해석에 따라 ‘慶雲’의 상징 의미가 달라진다. 黃節은 이것을 ‘밝다’라는 뜻으로 보아 ‘所晞’를 ‘해 뜨는 곳’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飄若風塵逝, 忽若慶雲晞」(제40수)를 보면 ‘晞’는 분명 ‘마르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고로 ‘慶雲’은 햇빛으로 인해 금방 사라지는 구름을 말하며, ‘風塵’과 더불어 ‘덧없는 짧은 인생’을 상징하기도 한다.

옛날의 절세 미인, 安陵君과 龍陽君은, 활짝 핀 복사꽃처럼, 번쩍번쩍 환한 빛을 지녔었다. 기뻐할 땐 봄날 같고, 예를 갖출 땐 秋霜 같아라. ……

昔日繁華子, 安陵與龍陽. 天天桃李花, 灼灼有輝光. 悅懌若九春, 磐折似秋霜. ……

라고 되어 있다. 「磐折似秋霜」은 직유로서, 예를 다하기 위해 몸을 굽혀 절하는 태도가 마치 싸늘하면서도 엄정한 가을 서리와 같다고 해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이 시에서 「秋霜」은 '엄정함'이라는 보편적이고 일반화된 원형적 상징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다시 제30수를 보면

……홀 휘장 밝은 해 가리고, 높은 정자 약한 소리 차단하여, 아침꾼들 親交의 情 멀게 하고, 뜬구름 한낱을 어둡게 만드니, 여인네들 똑같이 차려 입고, 고개 한번 돌리자 나라가 기운다. ……

……單帷蔽皎日, 高樹隔微聲. 讒邪使交疏, 浮雲令畫冥. 嫵婉同衣裳, 一顧傾人城. ……

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單帷」와 「高樹」는 비유적으로, 「讒邪」와 「嫵婉」 등은 직설적으로 표현하였지만, 모두 임금의 주위에서 서성대며 떠날 줄 모르는 아침꾼이나 간신배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讒邪」와 대를 이루고 있는 「浮雲」 역시 높이 떠 있으면서 태양을 가려 한낱을 어둡게 만드는 방해꾼으로서, 아침꾼이나 간신배를 상징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다시 제58수를 보면

큰 관 뜬구름 가르고, 긴 칼 하늘을 꿰뚫는다. 어찌 세상사 신경 쓰라, 한 세상 뛰어넘으면 그만인데, 非子를 내 마부 삼아, 세상 끝 낫선 땅 소요해야지. ……

危冠切浮雲, 長劍出天外. 細故何足慮, 高度跨一世. 非子爲我御, 逍遙遊荒裔. ……

라고 되어 있다. 원래 「危冠(高冠)」이나 「長劍」은 기개가 높고 절조가 뚜렷한 志士들의 신체 장식품으로 주로 인식되어 왔다.<sup>16)</sup> 따라서 「危冠切浮雲, 長劍出天外.」은 하늘을 찌를 듯한 시인의 豪放淸逸한 가상을 묘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로 「浮雲」은 「天外」에 비견될 만큼 높은 곳에 떠 있다는 의미로 쓰였을 뿐 별다른 상징적 의미는 없다. 다시 제21수를 보면

……소매 훑날리며 긴 칼 어루만지다, 고개 들어 뜬구름 바라보니, 구름사이로 짐은

16) 《楚辭》〈涉江〉:「帶長劍之陸離兮, 冠切雲之崔嵬.」, 《鹽鐵論》〈殊路〉:「子路解長劍, 去危冠, 屈節於夫子之門.」

학이 날며, 지조 지키려 울음소리 드높인다. 푸른 하늘로 한번 솟구치면, 오랜 세월 다시  
울지 않으니, 어찌 메추라기 종달새와 노닐며, 날개 맞대고 마당에서 즐기겠는가?

……揮杖撫長劍，仰觀浮雲征。雲間有玄鶴，抗志揚聲哀。一飛沖青天，曠世不再鳴。  
豈與鶉鷓遊，連翩戲中庭。

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浮雲'은 玄鶴이 그 사이를 날아다닐 만큼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青天'과 더불어 선계를 연상케 한다. 鶴이란 원래 선계의 동물  
이며 속세의 메추라기나 종달새와 같은 小鳥와는 구분되기 때문이다. 다시 제48수를  
보면

鳴鳩嬉庭樹，	산비둘기는 앞뜰 나무에서 즐기고
焦明遊浮雲，	焦明은 뜰구름 사이에서 노닌다
焉見孤翔鳥，	어찌 홀로 나는 새를 볼 수 있으리
翩翩無匹群，	짝도 무리도 없이 훨훨 날아다니니
死生自然理，	죽고 사는 것이 자연의 이치일진대
消散何縵紛？	흩어져 사라짐이 뭐 그리 어지러운가?

라고 되어 있다. 이 시에 등장하는 '浮雲' 역시 玄鶴 대신 焦明이라는 상상의 새가  
등장했을 뿐 제21수와 똑같이 사용되었다. 모두 선계를 의미하는 상징물로 사용되었  
다고 할 수 있다. 다시 제7수를 보면

더위가 올 여름 유난했는데, 이 달도 곧 끝나려 하는구나. 좋은 나무들 녹색 잎 늘어  
뜨리고, 푸른 구름은 질로 구불구불, 사철이 매년 새롭게 바뀌니, 해와 달도 따라서 바뀌  
는구나.……

炎暑惟茲夏，三旬將欲移。芳樹垂綠葉，青雲自逶迤。四時更代謝，日月遞差馳。……

라고 되어 있다. 甘露5년 6월 甲寅일(3일)에 司馬昭가 常道鄉公을 세우고 연호를  
景元으로 바꾸었다는 《魏志》의 기록(17)을 근거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시를  
위·진의 교체라는 정치적 현실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라고 보고 있다.<sup>18)</sup> 따라  
서 여름이 끝난다는 것은 결국 위실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芳樹垂綠葉，青雲自逶迤。」을 보면, 한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암울한 이미지가 전혀

17) 「甘露五年六月甲寅，司馬昭立常道鄉公，改元景元，在月之三日」

18) 何焯，陳沆，曾國藩 등은 《魏志》의 기록을 근거로 이러한 견해를 밝혔고, 나머지 대부분 주  
석가들은 《위지》의 기록은 생략한 채 이에 동의하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다만 陳伯君만이 이  
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陳伯君校註 《阮籍集校註》 p.233-235)

배여 있지 않고 단지 한여름의 풍경을 객관적으로 묘사했을 뿐이다. 이렇게 본다면 ‘靑雲’은 푸른 하늘에 높이 떠다니는 구름, 즉 한여름(盛夏)의 상징물로 등장했을 뿐이다. 그러나 어떤 판본은 ‘淸雲’이라고 기록하고 있어, 이것을 ‘위실의 은총’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sup>19)</sup> 다시 제47수를 보면

生命辰安在.	내가 태어난 때가 언제였는가 ?
憂戚涕沾襟.	근심스러워 눈물이 옷깃을 적신다
高鳥翔山岡.	높이 나는 새는 산등성이를 돌지만
燕雀樓下林.	제비나 참새는 아래 숲에 깃든다
靑雲蔽前庭.	푸른 구름이 앞마당을 가리고
素琴懷我心.	素琴 <sup>20)</sup> 이 나의 심금을 울린다
嵩山有鳴鶴.	嵩山에 우는 학 있으니
豈可相追尋.	어찌 쫓아 구할 수 있을까?

라고 되어 있다. 이 시는 高鳥와 燕雀에게 주어진 운명적 신분의 상하를 통해 자신의 출생 및 성장이 순탄하지 못했음을 비탄해 하면서, 五嶽 중의 하나인 嵩山에 있는 鳴鶴과 같은 삶 즉 仙人의 삶을 기원하고 있다. 「靑雲蔽前庭, 素琴懷我心」은 집안의 정경을 묘사한 것인데, 푸른 구름이 앞마당을 가려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거기에는 祥祭<sup>21)</sup>를 치를 때 연주하는 素琴이 울려 퍼진다고 하여, 울적한 시인의 마음을 경치에다 이입한 移情入景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그런데 ‘靑雲’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왜냐하면 푸른 하늘에 높이 떠다니는 구름인 ‘靑雲’은 이 시 분위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시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烏雲(검은 구름)’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sup>22)</sup> 白日을 차단하는 ‘浮雲’과 같은 의미로 보기도 한다.<sup>23)</sup> 그러나 ‘靑雲’이 왜 ‘烏雲’인지 설명이 전혀 없고, ‘浮雲’이라고 주장하는 설 또한 일리는 있으나

19) 《六朝詩集》·張鳳翼本·陳光明本·河焯本·蔣師滄本 등은 모두 ‘淸’으로 되어 있다. 劉履는 ‘靑雲’을 ‘綠葉垂蔭之象(靑雲이란 푸른 잎이 그늘을 내리는 모양)이라 하여, 위실의 은총이 여러 신하에게 내렸음(芳樹之靑蔭猶自遠布, 以見朝諸臣受魏恩寵)을 일컫는 것이라 하였다. 呂向 또한 ‘위나라에 餘德이 여전히 존재한다(魏尚有餘德)’는 것을 비유한 것이라 하였다. (陳伯君校註《阮籍集校註》p.233-234)

20) 장식이 전혀 없는 거문고로서, 부모나 친척이 상을 당해서 祥祭를 모실 때 주로 연주되었다. (《禮記》〈喪服四制〉曰:「祥之日, 鼓素琴。」)

21) 장사를 치르고 일 년 뒤에 지내는 제사를 “小祥”이라 하고, 이 년 뒤에 지내는 제사를 “大祥”이라고 함.

22) 韓格平註釋《竹林七賢詩文全集譯注》p245, 吉林文史出版社, 長春:1997)

23) 古直曰:「此首乃思叔夜之作. 叔夜臨命素琴而彈之. 故曰:『素琴懷我心』. 叔夜以鍾會之讒而死. 『靑雲蔽前庭』. 猶古楊柳行云:『讒邪害公正, 浮雲蔽白日』也.」(古直箋《阮嗣宗詩箋》p36, 廣文書局, 臺北:1979)



‘靑雲’과 ‘浮雲’의 의미는 너무나 다르다. 따라서 원문에 충실하여 하늘 높이 떠다니는 ‘푸른 구름’으로 보았다.

### Ⅲ 日(陽, 暉, 光), 露, 塵

먼저 제32수를 보면

아침 햇살 다시는 성하지 못하고, 해는 어느새 서쪽으로 기운다. 사라짐이 마치 俯仰  
같거늘, 어찌 九秋 같다고 하겠는가? 인생이란 먼지나 이슬 같지만, 하늘의 도는 아득히  
유구한 법……

朝陽不再盛, 白日忽西幽, 去此若俯仰, 如何似九秋, 人生若塵露, 天道邈悠悠……

라고 되어 있다. 아침에 해가 뜨면 잠시 찬란하게 빛을 발하다가 금세 중천에 떠올라  
는 감박할 사이에 서산으로 넘어가니, 하루가 끝나는 것이 마치 고개를 들었다 놓는  
사이에 일어나는 짧은 순간처럼 느낀다. 그래서 첫 두 구인 「朝陽不再盛, 白日忽西  
幽.」은 이런 느낌을 언어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朝陽」이나 「白日」은  
모두 수명이 길지 못한 자연물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흔히 시인들은 이것을 인간에  
게 대입하여 ‘덧없는 짧은 인생’을 비유할 때 자주 사용한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자연  
물은 모두 隱晦曲折한 완적의 영희시라는 점에서 당시의 시대 상황과 견주어 또 다  
른 상징의 의미를 겸하고 있다고 본다.<sup>24)</sup> 즉 한때 잠깐 빛을 발했다 다시는 성하지  
못하는 아침햇살이나 중천에 떠 있다 순식간에 서산으로 사라지는 해 모두 잠깐 흥했  
다가 衰落한 ‘魏나라’를 상징한다는 것이다. 「人生若塵露, 天道邈悠悠.」는 내용상  
서로 대가되는 것으로, 짧은 인생(人道)과 영원한 하늘의 도(天道)를 대비시켜 놓은  
것이다. ‘塵’은 보잘 것 없는 것으로, ‘露’는 짧은 시간 존재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전  
통적으로 ‘덧없는 짧은 인생’을 상징하는 데 주로 사용되어 왔다. 다시 제40수를 보  
면

……晷度<sup>25)</sup>를 보면 천지는 영원한데, 슬프도다! 인명이란 미천한 것, 바람 속 먼지  
처럼 사라져 버리고, 채색구름처럼 말라 없어지는 것. 長壽는 내가 소원하는 바이나, 영  
광과 총애는 바라는 바가 아니지……

24) 聞人談曰:「按『去此, 去魏盛時.』『九秋, 喻易代.』方東樹曰:「以『朝陽』興魏, 言『去此若俯仰』猶言『其亡也忽焉.』」王闓運曰:「言不爲魏死, 耻與晉生.」

25) 晷儀(해시계)에 투사되어 나타나는 해 그림자의 장단 度數를 줄인 말이다.

……晷度有昭回，哀哉人命微！飄若風塵逝，忽若慶雲晞。修齡適余願，光寵非己威。……

라고 되어 있다. 이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미천한 인명을 영원한 천지와 비교하여 '風塵'이나 '慶雲'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風塵'이나 '慶雲' 모두 '덧없는 짧은 인생'26)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제80수를 보면

……인간의 수명에는 길고 짧음이 있어. 慷慨하나 장차 그것을 어찌하리? 순식간에 아침해가 떨어지니, 가고 또 가서 어디로 가는 걸까? 늦가을의 풀을 보지 못했느냐? 지금이 바로 꺾여질 때인 걸.

……存亡有長短，慷慨將焉之？忽忽朝日隕，行行將何之？不見季秋草，摧折在今時。

라고 되어 있다. 인간의 수명은 정해진 바가 없어서, 어떤 사람은 천수를 누리고 어떤 사람은 요절한다. 인간의 힘으로 수명을 조절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오직 비탄감개할 뿐이다. 그러나 사람이 천수를 누린다 한들 그 인생 역시 순식간에 지는 하루해와 같고, 더욱이 노년의 인생이란 한풀 꺾인 늦가을의 풀과 같다고 여겼다. 시인은 인생에 대한 실의를 이렇게 탄식조로 노래하고 있다. 여기서도 역시 제32수와 마찬가지로 아침해(朝日)는 훌쩍(忽忽) 사라져버리는(隕) 대상으로 사용되었으니 '덧없는 짧은 인생'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 역시 '위나라'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27) 다시 제5수를 보면

……놀이가 채 끝나기도 전에, 하루해가 훌쩍 지나가. 말을 달려 되돌아오다, 멀리 三河28)를 바라보았다.……

……娛樂未終極，白日忽蹉跎。驅馬復來歸，反願望三河。……

라고 되어 있다. 시인은 젊은 시절 춤과 노래를 좋아하여 자주 咸陽을 드나들며 知人들과 즐겼는데, 놀이가 채 무르익기도 전에 하루해가 졌으니 무척이나 아쉬워하였다. 여기서도 '白日'은 짧은 시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29) 다시 제81수

26) 이미 (주)14에서 언급하였음.

27) 蔣師淪曰：「『忽忽朝日隕』喻曹氏享國不永也。」

28) 河東，河南，河內 등 세 개의 郡을 가리킨다. 전후하여 일찍이 唐堯，夏代，周代의 都城地區이며, 천하의 중심이다.(《史記》〈貨食列傳〉) 여기서 천하의 중심인 都城은 위나라의 수도인 洛陽을 가리켜 한 말이다. 일설에는 阮籍의 고향인 陳留가 秦代에 三川郡에 속했는데, 三河란 즉 三川郡을 가리킨다고도 한다.

29) 제5수에 관하여는 주석가들이 많은 주관적 해석을 내놓았지만 '白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다만 陳旒만이 「白日忽蹉跎」는 明帝의 崩御를 가리키는 것이라 하여, 태양은 임금을 상징

를 보면

……사람이 태어나 오랫동안 즐기지만, 백 년을 스스로 요원하다고 말한다. 태양이 隅谷<sup>30)</sup>에 떨어졌으니, 저녁이 다시 아침 되지는 않으리라. 어찌 세속의 일을 버리고, 崑崙仙境에서 마음껏 날아다님과 같겠는가?

……人生樂長久，百年自言遯。白日隕隅谷，一夕不再朝。豈若遺世物，登明遂飄緜。

라고 되어 있다. 이 시에서 생략된 앞 네 구는 세 명의 선인과 그들의 삶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sup>31)</sup> 이에 반해 위의 첫 네 구는 선인의 삶과 견주어 인간의 삶을 나열했고, 마지막 두 구에서는 선인의 삶을 기원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 인간의 삶이란 결국 만년에 이르면 태양이 隅谷에 빠진 꼴이고, 우곡에 빠진 태양은 두 번 다시 뜨지 못하여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신선세계를 동경한다는 점에서 앞에서 인용한 제80수와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sup>32)</sup> 다시 제 35수를 보면

세상사가 어찌나 어지러운지, 사는 게 고통 뿐 여유 없어라. 젊은 시절 훌쩍 지나가니, 태양을 맞는 아침이슬 끝. 원컨대 羲和가 고삐 잡아, 해가 움직이지 말았으면……  
世務何縹緲，人道苦不遑。壯年以時逝，朝露待太陽。願攬羲和轡，白日不移光……

라고 되어 있다. 인생에 있어 젊은 시절이란 태양을 맞이하는 아침이슬처럼 아주 짧은 시간밖에 존재하지 못한다. 그래서 시인은 태양을 운행하는 마부인 羲和를 시켜 고삐를 당겨 태양이 옮겨가지 못하도록 하여 시간이 멈추기를 원한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시인은 선계를 그리워하고 정신적 명상을 시도한다.<sup>33)</sup> 이처럼 ‘朝露’는 아침에 잠깐 존재하는 것으로, ‘白日’ 역시 오래 머물지 못하고 훌쩍 지나가는 것으로 여겨, 당시의 시대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 주석가들은 ‘魏祚’를 상징하는 것이라 주장한다.<sup>34)</sup> 다시 제24수를 보면

한다는 상투적인 해석을 내놓았으나 설득력이 부족하다.(陳伯君校註 《阮籍集校註》 pp227-229, 中華書局, 北京:1987)

30) 《列子》曰：「夸父不量力，欲追日影，逐之於隅谷之際。」  
31) 「昔有神仙者，狹門及松喬，喻習九陽間，升遐噴雲霄。」  
32) 蔣師淪曰：「『白日』一韻，即上首所謂『忽忽朝日隕』也。」  
33) 「……天階路殊絕，雲漢遶無梁。濯髮鳴谷濱，遺遊崑岳傍。登彼列僊組，採此秋蘭芳。時路烏足爭，太極可翱翔。」  
34) 蔣師淪曰：「『願攬羲和轡，白日不移光』，欲延魏祚也。」曾國藩曰：「『白日不移光』云者，欲使魏祚不遑移於晉也。」

깊은 시름에 心志가 꿈꿨고, 심한 두려움에 늘 놀란 듯하였다. 소요하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붉은 해가 문득 서쪽으로 기운다.……

殷憂令志結，怵惕常若驚。逍遙未終晏，朱暉忽西傾。……

라고 되어 있다. 시인은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리저리 소요를 하다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았다고 생각하였으나 벌써 저녁이 되었다. 「朱暉忽西傾」은 앞에서 인용한 제32수의 「白日忽西幽」나 제5수의 「白日忽蹉跎」와 거의 비슷하다. 위의 시에서 보았듯이 짧은 시간에 국운이 다한 위나라의 운명을 비유한 것이라고도 한다.<sup>35)</sup> 따라서 「朱暉」 역시 「위나라」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제8수를 다시 보면

번쩍번쩍 서쪽으로 기우는 해, 은은한 빛이 나의 옷을 비춘다. 회오리바람 사방 벽으로 불어닥치니, 겨울 철새들 서로 더불어 의지한다.……

灼灼西頹日，餘光照我衣。迴風吹四壁，寒鳥相因依。……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頹日」은 해(白日)가 기우는 것이므로 기울어져 가는 위나라의 형세를 직접적으로 상징한 것이라 볼 수 있다.<sup>36)</sup> 다음 구의 「餘光」 역시 위나라와 관련하여 「위나라의 은총」이라고 보는 것도 별 무리가 없다.<sup>37)</sup>

#### IV 昆蟲類(蟋蟀, 蟋蟀, 蟋蟀)

먼저 제14수를 보면

가을이 되니 서늘한 기운 감돌고, 귀뚜라미는 침상 휘장에서 온다. 사물을 感傷하다 깊은 시름에 빠져, 안절부절 마음은 서글픈 생각뿐.……

開秋肇涼氣，蟋蟀鳴牀帷。感物懷殷憂，悄悄令心悲。……

라고 되어 있다. 귀뚜라미는 음력 시월이 되어 날씨가 추워지면 침대 밑으로 와서 온다고 옛부터 전해져 오고 있다.<sup>38)</sup> 그런데 이 시에서는 칠월에 이미 침상 휘장에 와

35) 蔣師滄曰：「朱明西傾，喻國運將終也。」

36) 五臣張鏡曰：「頹日，喻魏也。」何焯曰：「灼灼西頹日」喻魏室。

37) 劉履曰：「言魏室雖微，尚皆被其恩寵，比之日雖西頹，而其餘光猶灼灼然照我也。」吳洪曰：「灼灼」句以日之暮比魏祚之將革；「餘光」句魏與已尚有一線之義未絕。」

38) 《詩經》〈邶風·七月〉：「七月在野，八月在宇，九月在戶，十月蟋蟀，入我牀下。」

서 울고 있다고 하였으니, 이에 대해 여러 주석가들은 급변하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그렇게 묘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sup>39)</sup> 다시 제24수를 보면

……소요하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붉은 해가 문득 서쪽으로 기운다. 귀뚜라미는 지게문과 창문에서, 쓰르라미는 안마당에서 울어댄다.……  
……逍遙未終晏，朱暉忽西傾，蟋蟀在戶牖，蟋蟀號中庭。……

라고 되어 있다. 해가 서산에 진 후 저녁이 되자 이곳저곳에서 '蟋蟀'과 '蟋蟀'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귀뚜라미와 쓰르라미는 원래 오래 살지 못하는 곤충이다.<sup>40)</sup> 시인이 여기서 한해살이 곤충인 귀뚜라미와 쓰르라미를 등장시킨 것은 가을이라는 상징적 의미도 있지만 인생의 말년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다.<sup>41)</sup> 한해살이 곤충인 경우 가을은 삶의 마감을 준비해야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다시 제71수를 보면

무궁화꽃이 무덤 가에서, 번쩍번쩍 빛을 내나가. 숲 속으로 해 넘어가자, 나풀나풀 길가로 떨어진다. 귀뚜라미 지게문에서 노래하고, 쓰르라미 가시덤불에서 우는구나. 하루살이는 사흘 살면서도, 알록달록 날개 단장한다.……  
木槿榮丘墓，煌煌有光色，白日頹林中，翩翩零路側，蟋蟀吟戶牖，蟋蟀鳴荊棘，蜉蝣玩三朝，采采修羽翼。……

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木槿'이나 '白日'은 하루라는 짧은 시간밖에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명에 그친 '위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 다음에 등장하는 '蟋蟀'이나 '蟋蟀' 그리고 '蜉蝣' 등도 역시 짧은 삶을 운명적으로 타고난 곤충들이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곤충들 모두 짧은 운명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단명의 '위나라'와 무조건 연관짓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단명과 종말이라는 원형적 상징과 관련이 더 깊다고 하겠다.

#### IV 結論

완적의 <영희시>82수에 등장하는 詩語로, 자연계의 두 축인 하늘(天)과 해(日),

39) 五臣呂向曰：「今言初秋始涼已鳴牀帷者，傷時政迫促。」閔齊華曰：「初秋始已鳴牀帷，傷時變之急也。」吳淇曰：「此詩『開秋兆涼氣』，乃七月也，『蟋蟀鳴牀帷』則是先時而鳴(喻世之將亂也)。」  
40) 귀뚜라미는 이미 (주)36에서 언급하였다. 쓰르라미는 매미의 일종으로, 늦여름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운다. 두 곤충 모두 한해살이 동물로 오래 살지 못한다.  
41) 가을에 대한 의미는 이미 '秋風'이나 '凝霜' 등에서 많이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수시로 일어나는 자연계의 여러 현상들 즉 風, 霜, 雲, 露, 塵 등이 각각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완적의 시 풍격과 결코 무관할 수 없는 곤충 즉 蟋蟀, 蟋蟀, 蜉蝣 등도 함께 살펴보았다. 이렇게 분석한 결과를 한데 묶어 표로 만들면 아래와 같다

대표격	상징물	우리말 이름(번역)	상징의미	비고
風	秋風	가을 바람	司馬氏 집단의 흥기	제3수
	寒風	찬바람	"	제9수
	朔風	북풍	"	제16수
	颯風	회오리바람	"	제8수
	驚風	광풍(狂風)	"	제57수
翻風	회오리바람(旋風) or 상서로운 바람(祥風)	사마씨 집단의 흥기 or 선계	제70수	
霜	凝霜	된서리	사마씨 집단의 흥기	제3, 4, 9수
	微霜	무서리	"	제16수
	秋霜	가을 서리	엄정함	제12수
雲	玄雲	검은 구름	사마씨 집단의 흥기	제9수
	迴雲	회오리구름	"	제57수
	慶雲	상서로운 구름(卿雲)	사마씨 정권에 베풀한 관리 덧없는 짧은 인생	제70수 제40수
	浮雲	뜬구름	아침꾼, 간신배 아주 높은 곳 선계(仙界)	제30수 제58수 제21, 48수
	靑雲	푸른 구름	한여름(盛夏)	제7수
日 : 陽 暉 光	朝陽	아침햇살	덧없는 짧은 인생 or 단명한 魏나라	제32수
	朝日	아침해	"	제80수
	白日	해, 태양	짧은 시간 덧없는 짧은 인생 or 단명한 魏나라	제5수 제32, 35, 81수
	朱暉	붉은 태양 빛	"	제24수
	頽日	가우는 해	망하는 위나라	제8수
餘光	잔 빛(殘光)	위나라의 은총	제8수	
露	清露	맑은 이슬	"	제4수
	朝露	아침 이슬	덧없는 짧은 인생 or 단명한 魏나라	제35수
天	重霄	높고 높은 하늘	천자(일급)	제70수
	靑天	푸른 하늘	선계(仙界)	제21수
塵	風塵	바람 속 먼지	덧없는 짧은 인생	제40수
	塵霧	티끌, 이슬	"	제32수
昆蟲	蟋蟀	귀뚜라미	가을	제14수
			가을, 종말	제24수
			단명	제71수
	蟋蟀	쓰르라미	가을, 종말	제24수
			단명	제71수
蜉蝣	하루살이	"	제71수	

이상의 도표에서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영희시>82수에 나타난 몇 가지 상징양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風'은 모두 '사마씨 집단의 흥기'를 상징한다. 여기에 등장하는 바람은 모두 늦가을바람이나 겨울바람으로, 그 종류를 보면 秋風, 寒風, 朔風, 颶風, 驚風, 翔風 등이다. 늦가을 바람은 나뭇가지를 앙상하게 하고, 겨울의 세찬 바람은 살을 에는 추위를 몰아오고, 미친 듯한 회오리바람은 주위를 집어삼킬 듯하다. 이 모두는 위실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벌어지는 현실을 비유한 것이다.

둘째, '霜' 또한 '사마씨 집단의 흥기'를 상징한다. 서리는 늦가을이면 응당 나타나는 자연현상이다. 이러한 자연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곧 한해가 저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나아가 인생으로 따지면 정해진 수명이 다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한다. 완적은 이렇게 서리를 통해 한해가 감을 아쉬워했고, 또한 자신의 인생이 이미 만년이 되었음을 한탄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마씨 집단의 흥기로 인한 위실의 종말을 더욱더 슬퍼했다는 점이다. 이런 차원에서 등장한 것이 '霜'이다. 그리고 제12수에 등장하는 '秋霜'은 원형적 상징인 '엄정함'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

셋째, '雲'은 아주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다시 말해 어떤 구름이냐에 따라 그 상징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이다. '玄雲'은 '寒風'과, '迴雲'은 '驚風'과 함께 등장하여 '사마씨 집단의 흥기'를 상징하지만, '慶雲'이나 '浮雲' 그리고 '靑雲'은 그 상징하는 바가 제 각각이다. 특히 '慶雲'이나 '浮雲'은 시의 내용에 따라 상징의 의미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慶雲 2, 浮雲 3) 그리고 '靑雲'에 대한 해석은 난해하나, 原義에 충실하여 '푸른 구름'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한여름의 상징물로 등장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넷째, '日(陽, 暉 포함)'과 '露'는 모두 짧은 시간(길어야 하루)밖에 존재하지 못하는 자연물로 묘사되어 있다. 그래서 '朝陽'이나 '朝日' 그리고 '朝露'는 말할 것도 없고, '白日'이나 '朱暉'조차도 '짧은 운명'을 비유하는 자연물로 쓰였는데, 이것은 나아가 '덧없는 짧은 인생'을 상징하기도 하였고 궁극적으로는 '단명한 위나라'를 상징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頽日'이나 '餘光' 그리고 '清露' 등은 그 뜻에 따라 상징하는 의미가 바뀌었다.

다섯째, 하늘(天)에 속하는 '重霄(높고 높은 하늘)'나 '靑天(푸른 하늘)'은 모두 '높다'라는 원개념을 충분히 살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위라 할 수 있는 '천자'를 상징하기도 하였고, 속세를 벗어나 저 세상에 있다고 하는 '선계'를 상징하기도 하였다.

여섯째, '塵'은 자연계에서 가장 보잘 것 없고 하찮은 것으로, '風'이나 '露'와 함께

쓰여 '덧없는 짧은 인생'을 묘사하는 데 주로 쓰였다. 이러한 상징은 예로부터 상투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일곱째, '蟋蟀'이나 '蟋蟀'은 모두 한해살이 곤충으로, 가을이 되면서 울기 시작하지만 그 해를 채 넘기지 못한다. 이러한 태생적 운명을 이용하여, 완적은 한해의 가을철이나 하루의 저녁 무렵에 자주 등장시켜, 하루가 저물고 또한 한해가 다 가고 있음을 알렸다. 이것은 즉 '종말'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蟋蟀'와 함께 등장시켜(제71수) '단명'의 상징물로 다루기도 하였다.

### 【參考文獻】

- 陳沆撰 《詩比興箋》 藝文印書館 臺北:1970  
 黃侃 《阮步兵詠懷詩箋》 學海出版社 臺北:1975  
 黃節 《阮步兵詠懷詩注》 藝文出版社 臺北:1975  
 陳沆 《詩比興箋》 正生書局 臺北:1975  
 洪順隆撰 《六朝詩論》 文津出版社 臺北:1978  
 張仁青著 《魏晉南北朝文學思想史》 文史哲出版社 臺北:1978  
 古直 《阮嗣宗詩箋》 廣文書局 臺北:1979  
 余英時著 《中國知識階層史論》 聯經出版社 臺北:1980  
 邱鎮京著 《阮籍詠懷詩研究》 文津出版社 臺北:1980  
 朱義雲 《魏晉風氣與六朝文學》 文史哲出版社 臺北:1980  
 戴君仁編 《詩選》 中國文化大學出版部 臺北:1981  
 丘爲君 《自然與名教》 木鐸出版社 臺北:1981  
 季鎮淮 等注 《歷代詩歌選》 中國青年出版社 北京:1982  
 姜伯純著 《竹林七賢》 學生書局 臺北:1983  
 洪順隆撰 《由隱逸到宮體》 文史哲出版社 臺北:1984  
 何啓民著 《竹林七賢研究》 學生書局 臺北:1984  
 容肇祖著 《魏晉的自然主義》 里仁書局 臺北:1984  
 陳伯君校注 《阮籍集校注》 中華書局 北京:1987  
 盧昆 孫安邦 主編 《漢魏晉南北朝隋詩鑑賞詞典》 山西人民出版社 山西省:1989  
 祁欣 譯註 《阮籍詩文選譯》 巴蜀書社 成都:1989  
 馬茂元等撰寫 《先秦漢魏六朝詩 鑑賞辭典》 三秦出版社 陝西省:1990  
 胡孚琛 《魏晉神仙與道教》 人民出版社 1990  
 徐公持著 《阮籍與嵇康》 國文天地 臺北:1991  
 美善閣 姜逸波 選注 《漢魏六朝詩三百首》 岳麓書社 湖南省:1992



- 吳小如 等 撰寫 《漢魏六朝詩鑑賞辭典》 上海辭書出版社 上海:1992  
王洪著 《中國古代詩歌歷程》 朝華出版社 北京:1993  
高晨陽著 《阮籍評傳》 南京大學出版社 南京:1994  
韓格平註釋 《竹林七賢詩文全集譯注》 吉林文史出版社 長春:1997  
변성규 《완적영희시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서울:1991

### 【中文提要】

這一篇是關於〈詠懷詩〉82首裏的象徵樣態的最終論文。這篇以自然界的‘日’、‘天’與諸現象(風, 霜, 雲, 露, 塵 等等)爲主, 而且包含幾個蟲子(蟋蟀, 螻蛄, 蜉蝣)。結論而言之, 象徵樣態都有七個特點。第一, ‘風’是‘司馬氏集團的興起’的象徵物。第二, ‘霜’也是‘司馬氏集團的興起’的象徵物。第三, ‘雲’的象徵意味不是限於一個。例如說‘某雲’, 那個象徵意味按照‘某’字有變化。第四, ‘日’與‘露’兩個都是不久存在的東西, 所以是‘人生’或‘魏國’的象徵物。第五, ‘重霄’是‘九重雲霄’的略語。九重雲霄就是九重宮闈, 因此‘重霄’是‘國君’的象徵物。而且‘青天’是‘仙界’的象徵物。第六, ‘塵’是‘人生’的象徵物。這從來是常套的象徵。第七, ‘蟋蟀’、‘螻蛄’是豫告‘終末’的象徵物, 蜉蝣是‘短命’的象徵物。

### 【主題語】

阮籍 詠懷詩 자연물 상징양상